

2019 Story to Book 피칭작품 선정평가 종합의견

『2019 Story to Book』 사업은 국내 우수 스토리의 출판 분야 유통 및 사업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가위원장을 비롯한 출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장 포함 평가위원 5인은 구성 완성도,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 창작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접수된 17편의 작품 중 최종 10편의 작품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평가위원단은 ‘신청한 작품의 장르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다양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웠다’ 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 작품들이 선정되었으며, 작품의 완결에 있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므로 차후 출판 시 보다 탄탄한 내용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